

잠언24:1-14, 지혜가 무엇이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다가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해를 의미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1.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1)

“너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은 히브리어에서 ‘에노쉬’라는 말을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본성과 대조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교가 안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부러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악인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강포’라는 말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늘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말한다’는 것은 늘 저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생각하는 것과 말이 항상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행동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단언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화도 내지 말고, 그렇게 해보려고도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이 이미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는 관심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인이라면 관심조차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7:10절에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마지막이 이 모습입니다. 이걸 보고 누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2. 낙심하지 말라(10)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라피타’라고 읽습니다. 이말의 의미는 ‘가라앉다’ ‘떨어지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히펠형 완료’라고 합니다. 즉 2인칭 남성 단수 재귀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총 3회만 등장합니다. 혼란형식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법을 ‘낙담’에 사용한 것은 이 단어의 해설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좌절(낙담)의 상태에 도달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환난날에 우리들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져서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탄이 우리를 한입에 끝낼 것입니다.

1)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갈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2)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1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매어 달리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귀찮고 번거로우셔서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원한을 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3) 악인이 흥하고 잘 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7:5-6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 복미주 개혁 교회(CRC)
사랑의동산교회
Dong San of Love C.R.C.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